

1. SOC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분석

1) SOC 보고서의 구성

한국 정부는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유산(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No. 1484)’과 관련된 역사해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이 2015년 등재 시에 채택되었다(Decision 39 COM 8B.14).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유산 보전과 해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행계획 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이하 SOC)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7년 말에 SOC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정본을 2018년 초에 제출하였다. 2018년 제출한 수정본은 같은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완전한 이행과 SOC 업데이트를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2019년 12월에 SOC를 제출하였다.

2019년 SOC 보고서는 일본 내각관방과 각 지역 정부, 개별 유산요소의 소유자, 기타 당사자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내각관방에 의해 최종 정리되었다. 보고서는 Decision 42 COM 7B.10의 요지와 배경, 주요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유산별 구체적 조사와 보전 처리 현황, 향후 목표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Decision 42 COM 7B.10의 핵심 내용인 4·5항, 6항, 7·8·9항, 10항, 11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과 각 항에 대한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되어 있다.

표 1 결정문 및 답변 요약

결정문 내 문단번호	SOC 보고서상 답변요약
4·5항	하시마탄광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의 실행계획에 대해서 제시했다.
6항	방문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양적, 질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방문객 관리 전략이 마련되었다.
7·8·9항	해석전략에 근거한 유산 해석이 적절히 이루어져 왔다.
10항	관계자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관계자 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광범위한 대화 노력에 힘써 왔다.
11항	결정문 39 COM 8B.14의 완전한 이행과 보존현황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Decision 39 COM 8B.14에 제시된 권고 f)에서 언급된 인재양성 사업 및 권고 h)의 개발 사업과 함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SOC 보고서는 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전체 분량은 400쪽을 넘으며, 이 중 본문이 57쪽, 부록 내용이 349쪽에 달한다. (영문판 기준) 하시마탄광에 대한 보존대책과 방문객 관리 내용이 전체 분량의 70%를 차지하는데 비해 전체 역사의 해석에 대한 부분(7·8·9항)은 20쪽 분량으로 5%에도 미치지 못 한다. 10항 관련 당사자 간의 지속적 대화도 모두 일본 내 전문가회의 조직과 관련 시설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019년 SOC 보고서의 기본 구성과 주요내용

구분	항목	구성	쪽수	주요내용
		도입		전체 답변 요약
I. 본문	42차 4-5항 하시마탄광 보존관리	1. 배경 2. 진행조사내용, 개요 (1) 결정문 5항 요청사항 a), b), c) 관련 조사 (2) 결정문 5 c)항에 따른 방문자 이동 조사 3. 향후 방향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 4. 참고자료	04 ~ 20	· 건물조사와 함께 하시마 탄광에 대해서는 나가사키시가 고고학적 조사, 기록물 조사를 포함한 여러 조사를 진행하였음. · 추가연구와 보존작업을 진행할 예정
	42차 6항 수용가능 방문객 정도 체계마련	1. 배경 2. 방문자 관리 전략 개요 (1) 방문자 관리 전략 고려를 위한 절차 (2) 현행조사결과개요 (3) 방문자 관리 전략 내용 3. 참고자료	21 ~ 30	· 수용가능한 방문객은 양적 질적 조사를 근거로 검토함. · 다수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다수 지표를 결합한 방문객 관리전략 마련함
	42차 7-8-9항 해석관련	1. 배경 2. 대응방안과 성과 (1) 대응방안 (2) 성과 :해석감사보고서, 각구역 해석연구, 방문자센터, 가이드맵, 지원도구, 설명수정, 세계유산길홍보 3. 참고자료	31 ~ 41	· 2019년 3,8월 전구역 해석감사 실시 및 적절한 해석에 대한 연구 진행 · 향후 개별 방문자센터해석개발예정. · 이번 회계연도 내에 도쿄에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립 예정. · 전체해석 내용은 산업유산 정보센터 완료 시점에 재 보고 예정
	42차 10항 당사자간 대화	1. 배경 및 향후 방향 2. 대화를 위한 노력 사례 (1) 산업유산전문가위원회 (2)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유적군 보호관리국가위원회 (3) 지역보존위원회 (4) 세계유산길홍보회의 (5) 각 구역 내 주민회의와 행사 (6) 해석훈련	42 ~ 44	· 관련 당사자들(부성, 지역정부, 유산요소의 소유자와 관리자, 전문가, 지역사회, 관광업종사자 등)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와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짐
	42차 11항	1. 배경 - 권고 a) ~ g)	45 ~ 46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권고f)와 권고h)에 대해 답변함
	42차 11항 (39차 f) 진행중 훈련프로그램 수립과 이행	1. 배경 2. 2017년이후 진행현황과 달성내용, 향후방향 (1) 현행프로그램이행 : 안내매뉴얼, 보조교육자료, (2) 인적자원개발훈련이행 (3) 각 시,구역 워크숍 진행	47 ~ 53	· 각유산과 요소 부분별 유형에 따른 훈련지침 수립 · 책자발간 및 학습자료 발간예정 · 안내훈련, 인적자원개발훈련 지속 진행계획
	42차 11항(39차 h) 개발사업보고 (슈세이칸, 미에쓰해군독, 미이케항)	1. 배경 2. 진행상황 3. 당사국이 확인한 보존관련현안	54 ~ 57	· 다수의 개발사업, 공공시설신축, 확장 세부내용과 진행내용 수록 · 슈세이칸 신규도로건설 유산영향평가 예정 · 미케항 내 정박시설은 진행상황에 따라 보고서 작성예정

구분	항목	구성	쪽수	주요내용
II. 부록	권고사항 4-5항의 응답에 대한 부록		1 ~ 160	· 부록 1 하시마 탄광 건물 등 조사 결과 · 부록 2-1 고고학적 발굴 보고서 · 부록 2-2 고고학적 발굴 보고서 (하시마 탄광의 지하 유적 경계 조사) · 부록 3 Pit No.3권양기실 구조물 조사
	권고사항 6항의 응답에 대한 부록		161 ~ 258	· 부록 4 방문객 관리 전략
	권고사항 7-8-9항의 응답에 대한 부록		259 ~ 268	· 부록 5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2019년 3월과 8월 해석 감사
	권고사항 11항의 응답에 대한 부록		269 ~ 349	· 부록 6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 제철소, 조선소, 탄광 하기사 경관계획의 부분적 수정 · 부록 7 미에츠 해군소 완충 지구의 콘크리트 생산 시설의 건물이 세계 유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부록 8 미에츠 해군소 인근 건설 공사가 세계 유산에 초래하는 영향 평가 · 부록 9 폭우가 테라이마 탄요 유적(유산 구성요소 2-1)에 초래한 피해 상태 및 향후 대책 · 부록 10 관영 야하타 제철소 및 온가강 펌프실에 관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

2) 항목별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

(1) 4-5항: 하시마탄광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시마섬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공된 세부 사항에 대해 당사국을 치하하고, 하시마섬에서 진행될 향후 30년간의 보존사업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달성한 상당한 진전과 그러한 장기계획에 조달할 재원의 확보 노력에 주목하며, 그러한 사업이 섬의 응벽을 안정화하고 부패가 진행 중인 유물과 전함의 외형을 보존하는 한편 그 첫 단계로 응벽과 보존 기법의 연구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에 또한 주목하며,
5. 지문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대로 아래의 정보를 세계유산센터에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는 바,
- 1974년 이후 붕괴 또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한 목조, 강철, 강화 콘크리트 건물과 이들의 보존 가능성에 대한 하나 이상의 연구
 - 고고학적 추가 연구
 - 사료, 구조물 자재, 방문자의 이동에 대한 추가 연구
 - 사업 마감시한, 단계별 사업이행 기법, 연례 목표 설정 내용을 담은 나가사키 시의 실행계획

• SOC 보고서 내용

- 하시마탄광과 관련 시설에 대한 검토와 조사는 2013년부터 3D레이저 측정, 무인항공기 사진촬영 등을 통한 건물조사(a), 석조 유구 및 갱도 입구, 호안 유구 등에 대한 발굴조사(b), 사료 조사(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 특히 발굴조사(b)를 통해 1899년 당시의 호안 석재를 확인하여 메이지시기 유산에 대한 보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료조사(c)에서는 옛 사진 수집과 구조물 자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숙소 건물 등에 쇠락과 파손 등이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영구 보존을 위한 방법이 기술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이에 대한 구조물 보존 방식과 구체적인 복원 방안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문자 이동조사에서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유산 요소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망로와 조망구역을 설치하였다.
- 하시마섬호안 복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담당부서 등이 참여한 '하시마섬호안보존사업팀'이 구성되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하시마섬의 복원은 10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결정문 5.d)에 해당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해 SOC 보고서에서는 "나가사키 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년 장기계획 그리고 10년 계획을 마련해 단계별 보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0년 연간 계획의 첫 마감시한은 2027년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1단계 완료 시점이다. 30년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10년마다 검토가 이루어진다. 전체 사업 마감시한은 공사방안에 대한 계획 검토와 향후 고려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시마탄광 복원 내용 중 일부에 아직 공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 OUV 관점에서 크게 4가지 관점을 중시하여 보존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OUV 기여요소로서 메이지시대 해안 호안, 생산시설 유구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복원한다. 둘째 OUV 요소 외에 국가사적의 내재적 가치를 보여주는 여타 요소(콘크리트 생산 및 거주시설 유구 등)를 수리해 전함 형태의 그 독특한 실루엣을 유지하고 석탄산업의 발달과 쇠퇴를 제시해 보여주며 또한 공동체 현실에 대한 증거를 보존한다. 셋째 포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며, 여러 요소의 쇠락 상태, 적용 가능한 보존기술의 활용 가능 여부 혹은 그 부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의 정도, 여타 구성요소와 방문자 안전의 영향, 소요예산 등을 일정범위의 관점에서 우선하고, 단계별 복원과 보존을 시작한다. 넷째 하시마섬의 일부 철근강화 콘크리트 유구는 이미 진행 중인 쇠락과 파손으로 인해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 구조물의 밀도가 장기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인근 바다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전함 모양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관리한다."

• 분석 결과

- 메이지시대 유구가 발굴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방문자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설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일기상황 등으로 입도가 제한되는 상황 변수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시마는 매년 기상 조건으로 4~5개월간 입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거나 유산이 붕괴되기도 했다. 2018년 가을 태풍으로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상륙이 금지되었으며, 2019년에도 태풍으로 7월부터 상륙이 금지되었다가 2020년 2월말에야 접근이 재개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은 예상 가능한 변수인데도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하시마의 유적들이 훼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원작업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날씨 등의 기상 상황으로부터 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軍艦島30号棟一部崩落について

2020.03.31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構成資産である軍艦島の中の、国内最古の鉄筋コンクリートのアパート「30号棟」の一部が崩落したことが30日にわかりました。30号棟は1916年築の7階建てで、当時の最先端の技術で建設されたものです。建物中央部の5階から屋上にかけての梁や外壁、床が大きく崩れ落ち、内部が見えています。長崎市世界遺産室によりますと、崩落の原因は、3月26日夜の強風と考えられています。

<최근 일부 붕괴된 하시마유산군 중 30호동 일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건물로 2020년 3월 26일 강풍으로 인해 일부가 붕괴되었다. 피해 상황은 4일 후인 30일에야 파악되었다.¹⁾>

- 30년간의 보존사업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유산 보존 방안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보여주지 못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 SOC에서 일부 구조물의 파손이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존방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산의 적절한 보호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 미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속적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가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 하시마섬의 보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한 '결정문 5.d)' 대해 일본 측은 "30년 장기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단계별 보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실제 '사업 마감시한, 단계별 사업이행 기법, 연례 목표 설정'이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6항: 각 유산요소의 수용 가능한 방문객 정도에 대한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방문자 수 모니터링은 모든 유산요소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용능력을 비롯한 방문객 관리 전략이 아래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마련될 예정이리는데 주목하며, 전략이 완성되면 자문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제출해 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며,

¹ 출처: 메이지 산업유산 공식누리집 새소식
(http://www.japansmeijiindustrialrevolution.com/newsandevents/news/20200331_877.html)

• SOC 보고서 내용

- 방문자 관리전략은 2019년까지 방문자 수치에 대한 양적 조사와 방문자 증감이 방문자의 안전, 보안, 편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질적 조사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 양적 조사인 유산별 일일방문자 수는 주중, 주말, 휴가기간 여부, 행사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유산요소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질적 조사의 경우, “유산요소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산요소에서 두 시간 이상을 보내는 방문자들이 해당 유산요소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 방문자 관리 전략은 유산의 보존과 주변 환경의 상황과 편의 제공, 이를 통한 방문자들의 안전·보안·편의·만족감 지향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대체로 방문자 증감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날씨 변화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지적되었으며, 글로버 하우스 및 사무소, 쇼카손주쿠와 같은 민간시설의 이용 제한이 언급되었다. 이들 유적은 당초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유가 제시되었다. 방문자 관리 전략은 2019년부터 내각관방의 지원으로 본격 시작된다.
- 방문자의 안전하고 유연한 관람을 위해 공통 로고를 담은 안내판 설치, 관람동선 수정, 이용 가능한 비상구와 출입구를 제한해 관람코스를 설정하는 ‘관람규칙’ 마련 등이 이뤄졌다.
- ‘개별 유산요소의 방문자 관리 전략’은 “개별 유산요소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유산요소들 간의 전체적인 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나가사키 구역 내 운영 중인 유산인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야적장의 제3 드라이도크와 자이언트 캔틸레버 트레인, 옛 목형장, 센쇼카쿠 영빈관 등은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현행 방문자 관리 전략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향후 유산요소 운영과 보존 간 균형 유지를 위해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만 기술하였다.

• 분석 결과

- 방문자 관리 전략은 방문자 수, 기타 이용에 관한 각종 지표를 요소로 한 양적조사와 방문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질적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자의 편의 확대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전략은 2016~2018년 3년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본격 수립, 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방문자 관리 전략) 따라서 현재의 보고서에는 실제 방문자 관리전략의 이행 결과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 다카시마, 하시마섬의 탄광에 대해서는 다카시마석탄자료관을 통해 방문자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까지의 기존에 비해 어떠한 변경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문자 관리 전략이 제출되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실제 이행되지도 않는다면 실효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 나가사키조선소 구 목형장, 기타규슈의 야하타제철소 본사사무소 등 현장 관람이 불가한 유산이 많은 것은 방문자 관람에 큰 제약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일본 측도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방문자 관리 전략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같음하였다.

(3) 7·8·9항: 해석 관련

7. 나아가 모든 유산요소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 소통방식이 개발되었지만, 개소 예정인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포함해 추가적인 개선책이 계획되어 있음에 또한 주목하며,
8.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해석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 또한 요청하며,
9. 당사국이 OUV 해당 시기와 그 밖의 시기 모두에 대해 유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지속할 때 해석 전략에 있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 SOC 보고서 내용

- 7, 8, 9항은 각각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포함한 추가적인 개선책을 주목하고(7항), 정보센터에 대한 업데이트내용 제출(8항), OUV시기 및 모든 시기에 대한 전체 역사 해석 작업 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9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7, 8항과 9항은 이질적인 내용이지만, 한데 묶여 있다.
- 일본 정부는 위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보완책으로 관련 당사자[내각관방, 일본메이지 산업유산 세계유산협의회 산업유산 국민회의(이하 NCIH)] 및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 해석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각 구역의 해석 연구와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 ‘모든 유산요소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 접근이 가능한’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2019년도 회기년도 중 설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적 모범사례의 고려에 관해서는 전체 유산의 해석감사·산업유산정보센터 이외로도 개별 방문자센터에 등재신청서, 등재신청서 요약본, 팸플릿, 구역별 가이드맵,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유산 방문자센터는 나라야마, 가마이시, 하기구역에 설치되었다. 가이드맵의 경우 나가사키(2018), 가마이시(2019)을 포함 순차적으로 장려될 예정이다. 접근 불가능한 유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근, 해석지원으로는 가이드메뉴얼 등을 발간했다.

• 분석 결과

- 일차적으로 7, 8항과 9항을 묶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엄밀하게 7, 8항은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해당하며, 9항은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므로 이질적이다. 이를 묶어서 서술하는 것은 9항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9항은 관련 당사자 간의 지속적 대화를 규정한 10항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메이지 산업유산을 총괄하는 일본 내각관방 ‘산업유산의 세계유산등록추진실(産業遺産の世界遺産登録推進室)’은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주요 전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시실은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으로의 초대’, ‘산업국가로의 궤적’이라는 두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관 당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군함도의 ‘조선인 징용공’이 허위라는 증언 등이 전시되었다고 보도했다.) SOC 보고서 제출 시점(2019.12월) 과 센터의 개관 시점(2020.3월)간 차이가 있어 SOC 보고서를 통해서도 해석 부분 업데이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主な展示内容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 平面図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1Fの情報提供スペースは、「導入展示（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への誘い）」、「メイン展示（産業国家への軌跡）」、「資料室」の大きく3つのゾーンで構成。

ゾーン1 導入展示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への誘い

導入的位置づけの展示ゾーンとし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概要、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れるまでの経緯をパネルで展示。体感型マルチディスプレイにより、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各構成資産や日本各地の産業遺産について写真や動画を活用しながら解説。ガイダンスシアターでは、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までの道のりや「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世界遺産価値を解説する映像を放映。

ゾーン2 メイン展示 産業国家への軌跡

①揺籃の時代、②造船、③製鉄・製鋼、④石炭産業、⑤産業国家への5つのコーナーで構成。幕末から明治にかけて僅か半世紀で産業国家へと成長してゆくプロセスを分かりやすく解説。パネルによる解説のほか、海外の産業遺産に関する専門家のインタビューや構成資産の歴史的価値を映像により紹介。ゾーン中央の情報検索テーブルでは、構成資産のビジュアルイメージをプロジェクターで投影するとともに、資産に関するより詳細な情報についてタブレット端末を使用して検索が可能。

ゾーン3 資料室

閲覧スペースやレファレンスカウンターのほか、書架や各種デジタル機器（モニター、検索装置、体感型マルチディスプレイ等）を設置し、産業労働を含む多様な情報にアクセスが可能。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주요 전시내용

산업유산정보센터 평면도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1층의 정보제공スペース는, '도입전시(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의 초대)', '메인전시(산업국가에의 궤적)', 자료실의 크게 3개 존으로 구성

ZONE1 도입전시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의 초대

도입위치에 있는 전시 ZONE으로서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개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경위를 패널로 전시하여 체감형 멀티디스플레이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각 구성요소와 일본 각지의 산업유산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활용 설명 가이드스 시어터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과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가치를 해설하는 영상을 방영

ZONE2 메인전시 산업국가로의 궤적

①요람시대, ②조선, ③제철·제강, ④석탄산업, ⑤ 산업국가로의 5개 코너로 구성. 막부말기부터 메이지에 걸쳐 불과 반세기에 산업국가로 성장해가는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해설. 패널 해설 외에도 해외 산업유산 관련 전문가 인터뷰와 구성 요소의 역사적 가치를 영상으로 소개. ZONE 중앙의 정보검색 테이블에서는 구성 요소의 비주얼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투영하는 동시에 요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에 대해 태블릿 단말을 사용하여 검색 가능.

ZONE3 자료실

열람 공간이나 레퍼런스 카운터 외, 서가와 각종 디지털 기기(모니터, 검색장치, 체감형 멀티 디스플레이 등)를 설치, 산업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에 액세스 가능.

² <http://www.cas.go.jp/jp/sangyousekaiisan/centre200331.html>

- 세계유산 위원회의 결정문에서는 OUV 해당 시기와 그 밖의 시기를 통틀어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지속할 때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이 강력하게 권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 보고서 상에는 전체 역사, 혹은 강제동원과 같은 민감한 역사를 설명하는데 국제적인 사례 (줄베레인탄광 산업단지, 포클링겐 제철소 등이 있다.³⁾)의 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석의 모범사례를 단순히 유산의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물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에 한정하여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4) 10항: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관한 사항

10. 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하며,

• SOC 보고 내용

- 일본 정부는 관계 부성과 지방정부 조직, 소유자, 관리자, 지역사회 관련자 등과 대화하여 “관련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①산업유산전문가위원회(전문가 집단), ②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유적군 보호관리국가위원회(정부 부성 및 지자체 대표자), ③지역보존위원회(정부 관계부성 및 지역정부, 지역 관계 단체 및 주민대표 등) 등이다.
- 층위별 관계 ‘당사자간 대화’는 주로 관광 진흥을 위한 방안 도출과 지역 행사, 각 유산에 대한 해석 훈련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 분석 결과

- 본 항목은 전체 역사 서술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대화를 장려한 조항으로 한국 등 주변국과의 소통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정부 관계자 및 산업유산 관련 단체, 인물 등 일본 국내로 한정시켜 논의를 협의화하였다.
- 따라서 유산의 형성과 운영 과정에 연관되었던 다양한 관련 당사자와 대화가 누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메이지유산에 대한 해석감사와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립은 산업유산 국민회의에서 참여하고 있다. 산업유산 국민회의는 메이지 산업유산과 관련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유산 해석과정에 참여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고른 입장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유네스코에 등재된 주요 산업유산으로는 독일 에센의 줄베레인 탄광 산업단지, 독일 포클링겐 제철소, 포토시 광산도시, 리버풀 - 해양 무역도시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에센의 줄베레인 탄광 산업단지, 포클링겐 제철소의 경우 강제노동 사실을 해설에 반영하고 있고 포토시 광산도시는 스페인 지배에 의한 은광경영과 선주민의 강제노동을 보여주고 있다. 리버풀의 경우 이민, 노예무역과 함께 산업혁명을 다룬 것이 특징이다.

(5) 11항: 「39 COM 8B.14」의 완전한 이행과 보존현황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11. 당사국이 Decision 39 com 8B. 14를 완전히 이행하고 2019년 12월 1일까지 유산 보존현황과 위의 이행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2020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가로 요청한다.

- 기한 내 보고서 제출과 형식상 절차 이행에 관한 것으로 특이 내용은 없다.

2.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39 COM 8B.14) 취지를 환기하여 ① 하시마섬 보존전략, ②방문자 관리전략, ③산업유산 정보센터에서 이뤄지는 해석 내용, ④OUV시기 및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 과정에서 국제적 모범사례 고려, ⑤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출한 2019년 SOC 보고서는 ①하시마섬 보존전략, ②방문자 관리전략에 대해서는 사안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④OUV해석, ⑤관련 당사자 간 대화 부분은 결정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답하고 있다.

2019년 SOC 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하시마섬 보존전략 및 방문자 관리 전략에 집중되어 있으나, 유적지에 대한 접근 제한(기상변화 문제, 사유지 접근, 산업시설로 가동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금지되는 유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둘째, 각 유산의 해석에 대해서 기존 보고서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OUV해석의 연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셋째, 강제동원의 역사를 비롯한 전체 역사(full history)의 해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혹은 ‘광범위한 대화’의 대상을 일본 국내에 국한시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39 COM 8B.14)’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제39차 권고에서 인정된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동원된 한국인(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은 2018년 SOC에서 “일본의 산업을 지원했던 다수의 한반도 출신자(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who supported Japanese industries)”로 왜곡되었으며, 2019년 보고서에서 아예 누락되었다.

넷째 ‘모든 유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대안으로 산업유산 정보센터가 제시되었으나, 정보센터에서의 해석 내용은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다.

한편, 이제까지의 세계유산위원회 요청사항과 각 SOC 보고서에서의 대응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결정문 요청사항 및 SOC 보고서 요약비교

등재시 요청사항 (Decision 39 COM 8B.14)	SOC 보고서 (2017 제출, 2018 수정본)	보고서 검토 후 요청사항 (Decision 42 COM 7B 10)	SOC 보고서(2019)
4항 a) 하시마탄광 보존작업 프로그램	- 내각관방, 나가사키 시와 협력, 하시마 탄광 보존작업 프로그램 준비.	4항 - 하시마섬 세부사항치하, - 보존사업의 진전, 재원확보 노력 주목, - 옹벽안정화, 유물의 외형 보존, 기법연구에 우선순위 주목 5항 a) 붕괴, 부패한 목재, 건물의 대한 보존가능성 연구 b) 고고학적 추가 연구 c) 사료, 구조물자재, 방문객 이동 연구 d) 마감기한, 단계별 사업이행, 목표, 실행계획	*조사내용 - 건물 레이저스캐닝, 측량, 긴급수리. - 고고학적 발굴연구 - 사료조사 진행 중 / 구조물 자재 연구 (구조적 열악 사례, 중규모지진 피해 우려. 염해 노출로 쇠락과 파손 진행. 영구보존기술은 마련하지 못함) - 방문자 이동은 안전에 부정적 영향 없음. *향후방향 - 조사연구 활성화 - 석탄시설 구조물 교체, 노후건물 재조성 - 역사문서, 신문, 사진 등 확인예정 & 노동현실 및 노동자 일상 조사 예정 - 구조물 파손 저도 테스트 - 방문자수 연구예정 - 지속 모니터링 차트 작성
4항 b) 보존작업 및 시행 프로그램	- 소유주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아래 19개 구성자산에 대한 보존작업프로그램 및 시행프로그램을 준비함 - OUV 기여 특성 보존주목 - 제3도크, 캔틸레버 크레인, 옛 목형장, 센소가쿠는 보존상태 양호, 보존작업 불필요		
4항 c) 방문객 한계점 설정 권유	- 각 구성요소 방문객수 조사중(2016~) - 2017년부터 질적조사를 수행(글로벌저택, 슈세이칸, 센간엔) - 2019 회계년도에 관리전략 작성예정, 한계점 설정예정	6항 - 방문객 관리 전략 2018 년 마련에 주무, 전략이 완성되면 자문기구에 제출 요청	
4항 d) 매년 자산 및 구성 요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기반 프레임 워크의 효과 모니터링	- 체크리스트 작성, 정기미팅,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음. (지구별 보존협의회, 국립보전협의회, 유적지별 워킹그룹	10항 - 관련 당사자간 지속적인 대화 장려	- 다양한 회의 소집 등 대화 적극 진행 (산업유산 전문기위원회,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유적군 보호관리국위원회, 지역보존위원회, 세계유산길흥보회의, 각 구역 내 주민회의와 행사, 해석훈련)
4항 e) 보존 관리 계획의 구현, 지역 보존위원회 결정 모니터링	- 모니터링 차트 작성 - ①구성요소와 원충지대 전반, ②구성요소, ③해설 활동, ④관련그룹들 - 가고시마의 슈세이칸, 데라야마 숫가마 유적, 세키요시 수문 모니터링 차트 연례보고서첨부		

등재시 요청사항 (Decision 39 COM 8B.14)	SOC 보고서 (2017 제출, 2018 수정본)	보고서 검토 후 요청사항 (Decision 42 COM 7B 10)	SOC 보고서(2019)
4항 f) 각 유적지의 관계자 및 직원 등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구성요소의 인적자원 능력배양 정책, 방법 생산 - 기본 훈련은 유산의 OUV, 보존관리 - 인적자원 훈련 시행상태 불충분 인정 - 훈련 신설, 확대, 교육자료생산, - OUV 해설자료, 보존테크닉, 역사자료 계획 	11항 Decision 39 COM 8B.14를 충분히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개발사업 - 해석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수립, 이행, 교육보조자료 개발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해석안내 매뉴얼, “세계유산을 전하다” “철의 이해”, “석탄의 이해”, “조선업의 이해”) - 유산안내직원, 담당자, 관련자 워크숍 개최
4항 g) 해설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해설점검 실시, 해설전략 개발. - OUV, 전체역사 해설방법 포함.(OUV-중공업 역사 유적별 역사, 인물 순으로 해설설정) - 전시기 포괄 원칙, 4가지 핵심정책, 조선인노동자 포함 - 2019년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립, 전반적 내용과 노동자들 이야기 전파 일정 	<p>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요소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 통신이 발전해 왔고 개소예정인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포함해 추가적인 개선책이 예정되어 있음에 주목 <p>8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해석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 <p>9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지속할 때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 	<p>*대응방안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감사 진행 : 2019년 2,8월 해석감사 실시 - 각 구역 해석연구 : 8개 구역 해석평가. - 방문자센터 제공 (2016년 나라야마, 가마이시, 2017년 하기) - 구역별 가이드맵 제공(팝플릿, app) - 해석지원도구 책자 발간(해석가이드 매뉴얼, 세계유산 알기, 철의 이해, 석탄의 이해, 조선업의 이해) - 시설설명내용 적절히 수정 : 설명문구 수정작업 실시 - 세계유산길 홍보 -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립 연구 및 준비 : 회계연도 중 설립계획
4항 h) 도로 및 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 내용, 경과 보고 - 각 개발 계획이 OUV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11항 Decision 39 COM 8B.14를 충분히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세이칸 도로 : 심의 진행 중, 최종설계, 영향평가 후 새로운 보고서 제출예정 - 미에쓰해군도코도로 : 사업완료 후 보고서 제출예정 - 미이케항 개발 : 신규정박시설 검토 중, 계획결정 후 보고서 제출 - 하기시 경관계획 : 일부수정. 경관통제지속 - 데라야마숫가마 : 산사태피해 보고 - 미에쓰 해군도코 : 콘크리트제조공장 이동, OUV에 영향 없음 - 야하타 제철소, 온가강펌프 : 내부복원, 보존작업 완료. 일반인 출입제한 중 (부록 6~7)

2020년 일본에서 제출한 ‘해석 전략의 이행상황 보고서’ 추가 분석

1. 『해석 전략의 이행상황 보고서』 개요(이하 이행상황 보고서)

1) 제출 개요

- 일본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20.11.30.), 이 보고서는 내각관방 산업유산의 세계유산등록추진실 및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언어	보고서 제목	게재수단
영문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Interpretation Strategy	유네스코 홈페이지 ⁵
일문	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戦略の実施状況についての報告	세계유산등록추진실 ⁶

- 동 이행상황 보고서는 제42회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개관 이후 해석전략에 관한 개선된 보고를 요청받아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이다.

2) 보고서 구성

- 보고서는 **1)본편**과 **2)부속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자료편은 (1)해석전략, (2)해석감사보고서 (3)각 유산구역별 해석 이행상황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행상황 보고서’의 분석

- 전체적인 보존상황을 중점으로 구성했던 지난 보고서와 달리, 금번 보고서는 권고 7,8,9항목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며, 이는 권고 8번 항목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후속·보완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7. 나아가 모든 유산요소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 소통방식이 개발되었지만, 개소 예정인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포함해 추가적인 개선책이 계획되어 있음에 또한 주목하며,

8.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해석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 또한 요청하며,

9. 당사국이 OUV 해당 시기와 그 밖의 시기 모두에 대해 유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지속할 때 해석 전략에 있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4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239>

5 http://www.cas.go.jp/jp/sangyousekaiisan/seikaiisan_houkoku/201130.html

- 다만, 정보센터 개소 관련 해석의 개선과 업데이트가 주요 내용인 7, 8번 항목과 유산의 '전체역사'를 강조한 9번 항목을 동시에 다룬 점은 지적할 수 있다.
- 전반적인 해석전략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내용	소관기관	기간
(1)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일관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공통 설명	내각관방, 지방정부	2020년 이후 순차도입
(2)	각 시설의 "전체역사" 업데이트	내각관방, 지방정부	진행중
(3)	한반도 등 출신 전 민간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관련 정보 수집	산업유산국민회의	진행중
(4)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치	내각관방	2019년도
(5)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해석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검토	산업유산국민회의, 지방정부	진행중
(6)	역량 배양 프로그램 및 교육 매뉴얼	산업유산국민회의, 일본근대산업시설을 위한 세계유산이사회	진행중
(7)	세계유산루트	세계유산루트 홍보위원회	진행중
(8)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나가사키 시설(제3드라이독, 대형 크레인)을 위한 디지털 3D 자료를 활용한 현장 및 온라인 해석(Scottish Ten 개발)	산업유산국민회의	진행중
(9)	Kosuge Slip Dock, 하시마 섬을 위한 디지털 3D 자료를 활용한 현장 및 온라인 해석(Scottish Ten 개발)	산업유산국민회의	진행중

(1) OUV에 대한 공통설명(9~12p)

- 일본 정부는 2017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산업유산과 그 해석에 대해 국제 전문가에 의한 해석 감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들의 OUV의 통합해설 관련, 산업유산정보센터가 허브로서 정보센터의 해석을 기반으로 각 지역 방문자 센터들의 해석이 도출될 예정이다.
- 공통전략 해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있지 않으며, 각 지역의 공통전략 해설을 소개하기 위한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각 지역의 공통전략 해설을 소개하기 위한 일정 계획>

지역	회계년도
하기	FY 2021 or after
가고시마	FY 2021 or after
나라야마	To be determined(at changeover to next exhibit)
가마이시	FY 2021-22
사가	FY 2021
나가사키	FY 2023 or after (하시마섬 포함 요소)
미이케	FY 2020
야와타	FY 2022

(2) 각 시설의 전체 역사 업데이트 관련(12~17p)

- 전체 역사의 해석을 이행하는데 있어, 일본정부는 Sue Hodges(ICOMOS 문화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과학 위원회 의장)로부터 세계유산의 해석에 관한 국제 모범사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해석은 '17년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했던 해석전략에 적시한 "전체역사"의 정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규제가 완화되면 해외 전문가로부터 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 산업유산 정보센터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OUV 기간(1850년대~1910년대) 외에 전쟁기간을 포함한 전체역사를 전시하였다. (zone 1: 도입전시, 2: 메인전시, 3: 자료실) 거대한 규모의 스크린과 멀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제공한다.
- 각 지역의 해석 모범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각 지역의 방문자 센터에 전시된 설명들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해석전략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에 의해 기존에 방문자센터에 설치되어 있던 콘텐츠들은 향후 산업유산 정보센터와 연계를 통해 바뀔 예정이다.
- 세계유산 방문자 센터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적절히 알리기 위해 책자, 디지털 자료들, 대중강연, 직간접 교육 프로그램, 보완 텍스트, 공동체 활동 등 체험형 이해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조선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 관련 정보 수집(17~37p)

- 2차대전 전, 중, 후 한반도 등 출신의 전 민간인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산업노동(Industrial labor)에 대한 1차 자료, 구두진술, 출판물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산업노동에 관한 자료 수집은 학술논문, 임금에 관한 데이터, 법정자료 등에 근거하였으며, 하시마 탄광 관련 주요 사건들은 정부기관에 의한 설문, 신문기사들과 기타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탄광에서의 산업노동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뷰는 탄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거나 당시 노동자들의 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었다.
- 이러한 조사 결과를 산업유산 정보센터 전시에 반영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징용정책(policy of requisition) 관련 법령전시, 일본노동자들과 한반도 및 다른 지역 출신의 노동자들이 똑같이 가혹한 환경 하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전시, 산업유산 관련 광범위한 서적자료 비치, 산업노동과 관련한 1차 자료(행정문서, 기록물, 신문기사 등) 디지털 검색 장치 등을 포함한다.

(4)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18~37p)

-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산업유산 관련 종합정보센터로서 산업유산 관련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사, 역량배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총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구역은 도입전시, 2구역은 메인전시, 3구역은 자료실이다. 1구역에는 세계유산 등재 연대표, 등재당시 일본대표의 발언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2구역에는 고립전략하의 초기 시도, 조선, 철강, 탄광, 그리고 산업화를 주제로 유산에 대한 설명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 3구역은 자료실로서 서적, 디지털장비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폭넓은 1차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은 2차 대전 중의 산업노동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 Zone 3 자료실 판넬 내용 사진 중 한국관련 내용 일부 수록

- 그림17 징용정책문서 해설판넬
- 그림22 부산일보(41.8.22) ‘고성출신 지원병 다시 광부를 얻었’
- 그림23 동양히노데신문(18.7.11)하시마탄광의 조선인 광부와 일본인광부의 난투사건
- 그림24 동아일보(22.6.8) 나가사키 부근의 조선촌
- 그림25 나가사키이치니치신문 (35.3.26) 탄광사고의 기사
- 그림31 동양공업에서 일한 조선반도출산노동자의 수기
- 그림34 전 하시마도민(재일한국인2세)의 증언 판넬분석결과

3. 분석결과

2020년 11월 30일 일본정부가 제시한 『해석전략 실시상황보고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결정문에서 권고한 제 8항의 내용인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해석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또한 요청하며’ 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단, 전체적인 분량 상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건립 상황과 전시내용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각 시설의 전체 역사 업데이트 관련

-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9항에 따르면 ‘해석전략에 있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19년 까지 제출했던 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해석감사 및 자문결과 만을 참고하였을 뿐, 실질적인 국제적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각 지역의 방문자센터와 연계되는 핵심적인 해설시설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유산정보센터 자체의 설립정보, 전시정보 등에 관한 사실관계만 제공하고 있으며 해설의 내용 제공은 명확하지 않아 전체 전시의 내용 및 ‘전체역사’의 내용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자문은 코로나 이후에 하도록 되어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해설 도출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 조선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 강제동원의 언급 없이 일본 노동자들과 한반도 및 다른 지역 출신의 노동자들이 “똑같이 가혹한 환경” 하에 있었다는 식으로 특수성을 희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등재 당시 일본대표가 밝힌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약속 내용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조선인 노동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된 노동’을 했다는 핵심적 사실에 대한 해설 없이 전쟁 하에서는 ‘모두가 가혹한 환경⁶’이었다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시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6 영문 원문(18p) : so that the situation in which both Japanese workers and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s worked under the same harsh conditions at that time can be understood.

일어 원문(17p) : 当時、日本人も朝鮮半島出身者等も同様に厳しい環境の下で働いていた状況が理解できるよう

있다. 또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관계만 밝히고 있으며,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 하시마에 한정되어 전시 및 자료수집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강제동원관련 위원회⁷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선인의 가혹한노동현실 및 강제동원상황은 하시마 뿐만이 아니다. 나가사키조선소, 타카시마탄광, 미이케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들 대상지에 대한 자료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전체역사'를 표기하는 방식은 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다. 다만 한국어판의 경우 해설의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번역, 오타, 맞춤법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에 제출한 SOC와 비교할 때 해설의 내용 등이 개선된 바 없음)

- 7·8·9 및 11항의 항목만 한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10항에서 장려한 '지속적인 대화'의 내용을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치 관련

-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설치에 일본의 내각관방이 소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제시된 전시구성내용의 대부분은 현재 산업유산 국민회의에서 제작하여 공개 중인 '군함도의 진실-조선인징용공의 검증'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 해당 홈페이지 자체가 한국 및 일본의 시민단체, 방송 등에서 제기한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반박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가 이 웹사이트에 기반하였다는 것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문제이다.



2020 해석전략보고서(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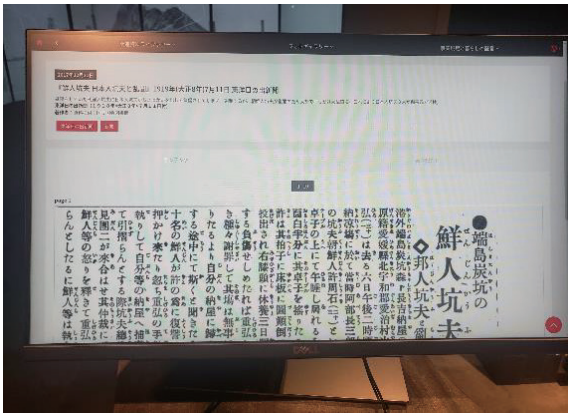


'군함도의 진실' 홈페이지⁸

그림 1 부산일보(41.8.22) '고성출신 지원병 다시 광부를 염원'

⁷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2018 등이 있다.

⁸ <https://www.gunkanjima-truth.com/l/ko-KR/library/tag/E>



2020 해석전략보고서(31p)



'군함도의 진실' 홈페이지

그림 2 동양히노데신문(18.7.11)하시마탄광의 조선인 광부와 일본인광부의 난투사건



2020 해석전략보고서(32p)



'군함도의 진실' 홈페이지

그림 3 동아일보(22.6.8) 나가사키 부근의 조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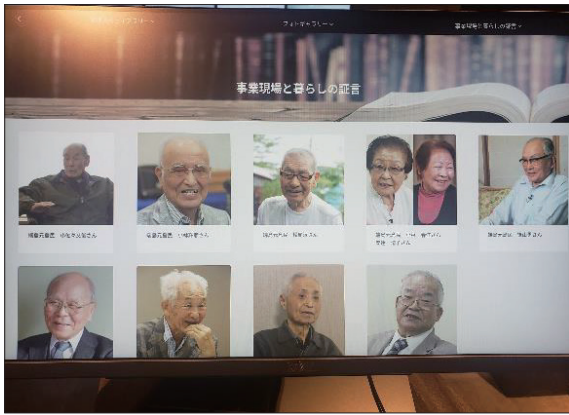


2020 해석전략보고서(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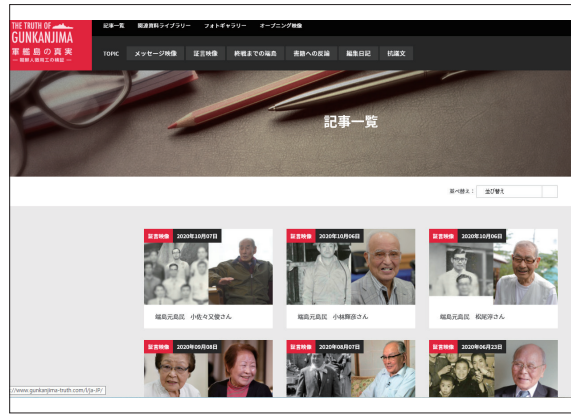
'군함도의 진실' 홈페이지

그림 4 나가사키이치니치신문 (35.3.26) 탄광사고의 기사



2020 해석전략보고서(33p)

그림 5 증언영상 목록



‘군함도의 진실’ 홈페이지



2020 해석전략보고서(38p)

그림 6 전 하시마도민들의 증언 판넬



‘군함도의 진실’ 홈페이지

